가지치기 등은 유용한 나무를 만든다.

- 산림에 대한 인위적인 간섭 행위 -

송홍선(민속식물연구가 · 한국임업신문 편집국장)

애써 심은 나무는 어떻게 보전하고 유용하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산림과 숲은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만이 오늘날의 자연보호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인가.

최근들어 환경론자나 자연보호론자들의 자연보호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산에 식수를 하고 무육(撫育)을 하는 인위적인 행위가 오히려 산림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환경론자들의 지나친 흑백논리적 사고방식이라 할지라도 예사롭지 않다. 산림에 대한 인위적인 행위가 자연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옳다면 이것은 분명 자연법칙에 역행하는 행위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조림은 자연 생태계의 조화뿐만 아니라 이용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조림된 산림은 보전하면서 활용돼야 하는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위적인 간섭이 없으면 산림의 보전과 활용은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산림에 대한 인위적인 간섭은 오히려 생태계 파괴보다는 나무의 이용가치를 높여주는 한 수단이 되고 있다.

오히려 요즈음처럼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악화되는 시점에서 산림을 방치하는 행위는 더 큰 환경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거꾸로 생태계의 천이 과정상 인간의 간섭행위는 산림과 숲, 그리고 주의의 환경조건을 더욱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천연림 지역 등은 보존지역으로 묶어둠으로써 그 안에서 이뤄지는 임분동태나 생태계 변화의 연구 등을 위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이 지역은 미래에 이용될 유전자원의 공급원으로 잘 보존돼야 할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무튼 산림은 지역 · 기후 · 지세 등의 조건에 따라 이상적으로 조성돼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유지 또는 유도돼야 한다. 그러므로 산림은 보전과 동시에 활용돼야 하는 당위성이 인정된다면 무엇보다도 가지치기 등 인간의 간섭행위가 절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간섭행위가 반드시 산림의 인공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법칙과 산림 생태계의 운영법칙을 잘 알려줘 인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예로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어떤 노령화된 산림이 태풍등으로 인해 파괴됐다고 하자. 피해를 본 이 산림이 원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일 분명하다. 그러나 인위적인 간섭행위가 가해졌다치자. 어린 나무로 생육환경을 조성해 주거나 식수를 하는 등의 인위적인 간섭이다. 결과는 쉽게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파괴됐던 산림생태계의 복구가 빠른 시일내에 이뤄진다는 예견이다.

또한 헐벗은 산이 있다 하자. 이런 곳에서는 태풍이나 기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기 전에 묘목을 식재해 주는 등의 인위적인 간섭을 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예가 바로 인간의 간섭행위 때문에 이뤄지는 산림과 환경의 유지작용이다. 비단 인간의 간섭행위는 헐벗은 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울창한 산림일 경우에는 활용을 위해선 가지치기 등의 인위적인 간섭행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우리 나라는 70%정도가 산림이다. 산림도 그동안 녹화정책의 성공으로 울창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소비되는 원목의 90% 이상이 수입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울창한 산림부국에서 목재의 소비를 수입원목에 의존하는 사실은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왜 대부분의 원목은 수입에만 의존해야 하는가. 이유는 산림녹화의 역사가 짧고 연료림 등을 위한 식수사업으로 말미암아 쓸모 있는 나무가 없는 탓인가. 게다가 나무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인간의 간섭이랄 수 있는 무육작업 등이 부족했기 때문인가.

나무는 무조건 심기만 하면 무한의 자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경제적으로 최대의 이윤을 남기고 건전한 숲을 유지해 환경보전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 등의 무육작업이 절대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다. 우리가 잘 관리하는 산림만이 우리에게 높은 활용가치를 줄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산림의 이용면만을 강조할 때 산림의 보전은 활용 다음이다. 산림의 보전도 중요하지만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래도 가지치기 등의 인위적인 간섭행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가지치기 등은 유용한 나무를 만든다.